

I. 시작하는 말

성령 충만은 환상을 보거나 기이한 일을 경험하거나 혹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성경은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원은 자라남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신분의 변화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구원은 수준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많아져 인격의 깊어지고 넓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I. 중심 말씀

1.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각이 꼭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질문)

2. 예배는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나 타종교는 다 예배를 사람이 만들었기에 그 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쪽에 강점을 줍니다. 하지만 레위기 9장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고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마무리 되어야 할까요? 내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기에 죽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불 즉 나의 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만약 내 불로 예배를 드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찬양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나를 어떻게 태웠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야 변화되어 집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질문)

3.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흠 없는 제물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수해야 합니다. 흠 없는 그 양에게 내가 안수하므로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즉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양과 소를 잡아야 합니다. 죄인이 직접 죽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로마 병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죽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축을 벗겨야 합니다. 이것도 죄인이 벗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뼈 마디마디를 조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벗기고 난도 질 하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제 그 은혜로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III. 정리하는 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살리신 예수를 하루도 잊지 말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놓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 4)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200)

- (1)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 (2)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 (3)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후렴) 아름답고 귀한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406)

- 1)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2)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3)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4)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후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